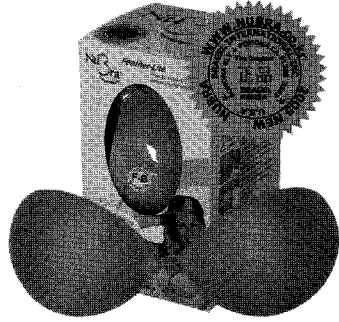


브라겔코리아, 짹통 누브라 단속에 몸살

원조 누브라를 판매하는 브라겔코리아(대표 윤봉석)가 '짹통'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누브라는 끈을 없앤 실리콘 소재 브래지어로 양 가슴에 붙여서 착용할 수 있어 노출 패션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인기를 끌고 있다. 주로 홈쇼핑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홈쇼핑이 집계하는 인기 상품 순위에서 매주 5위 이내 상위권에 오르고 있어 모방 제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브라겔코리아는 짹통 단속에 애쓰고 있다.



짹통 단속에 애를 먹고 있는 '브라겔코리아'의 정품 누브라.

윤봉석 대표는 '유사품은 착용감과 접착력이 떨어지고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며 '유사품들로 인해 우리 제품의 이미지까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누브라 유사품의 가격은 보통 3만원대로 삼하면 1만원도 안되는 9천9백원에 팔리기도 한다. 반면 미국 FDA에서 인증받은 의료용 접착제와 실리콘을 사용하는 브라겔코리아 제

품은 7만9천원에서 9만9천원 사이에 팔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유사품은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장기간 착용하면 심각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겔코리아는 유사품이 회사 매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누브라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판단해 한 판매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과 유사 특허를 출원한 회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유사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허기술정보서비스 방문자수 2천만 회 돌파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 이하 KIPRIS)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2천만 회를 돌파했다.

KIPRIS는 특허청 보유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일반인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국내 산업재산권 전체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최근 20년분 특허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유영기)이 운영하는 KIPRIS는 지난 '96년 7월 특허기술정보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98년 8월 인터넷 서비스로 전화하였다. 이후 2000년부터 무료 검색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이용자가 증가, 같은 해 6월 KIPRIS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백만 회를 돌파하였고, 이어 2003년 3월에는 방문자 회수 1천만 회를 기록하였다. 이번 KIPRIS 홈페이지 방문자 수 2천만 회 돌파는 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

민 인식 향상과 더불어,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의 지속적인 특허정보 활용 및 확산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특허정보원 유영기 원장은 '홈페이지 방문자 수 2천만 돌파는 KIPRIS가 신속·정확하고 편리한 특허정보 검색 환경의 구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서, 앞으로 특허고객의 보다 쉽고 편리한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변리사 시험 확 달라진다

오는 2008년부터는 2차 시험 선택 과목이 대폭 축소되는 등 변리사 시험 제도가 바뀐다. 지난 8월 7일 특허청은 우수 이공계 인력의 사장과 시험 관리의 비효율성 개선 및 변리업무의 세계화 추세 등을 고려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2008년부터 2차 시험 선택과목이 현행 31개에서 19개로 축소된다. 이는 매년 4~5개 과목에 응시자가 없는 사태가 반복되는 등 수험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과 동시에 과목간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응시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이 폐지대상으로 선정된다.

또 매년 1천6백여 명의 고시 낙방생이 발생, 이공계 우수 인력의 사장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1차 합격자 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행 5배수인 1천여명을 선발하는 1차 시험 합격자를 내년 4배수, 2007년부터 3배수 선발할 계획이다.

국제출원업무 증가에 따른 영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토익과 토플 등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대한 기준 점수를 10% 상향조정, 2008년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본 영어능력시험의 난이도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실시한 검정시험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 자격 자동부여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 수험생과 별도로 합격 인원을 선발하기로 했다.

진주시, 중소기업에 산업재산권 등록비 지원

진주시는 기업인의 기술개발 위욕을 고취시켜 첨단지식 산업사회의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록비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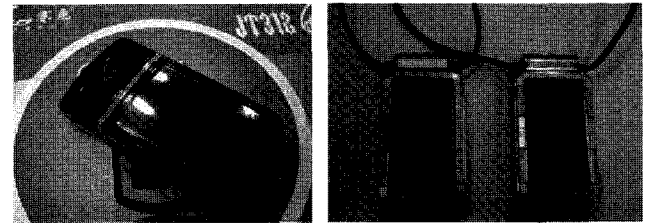
밝혔다.

진주시 소재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법 규정에 의거 공장 등록을 마친 기업이나 사업자 등록을 한 제조업체로 2005년 7월 1일 이후에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업체에 지원되며 특허는 1백만원, 실

용신안의 경우에는 50만원의 등록비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나 자금 소진시에는 신청이 만료되며 희망자는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창업지원팀(055-749-2194)에 신청하면 된다.

중국산 MP3 플레이어 '짹통' 다시 활개



레인콤의 빅히트 제품인 'N10' DMF 모방해 만든 중국 제품(왼쪽)과 엠피오가 출시한 '캐럿 FL350'을 모방한 중국산 짹통 제품(오른쪽).

한동안 뜸했던 중국산 MP3 플레이어 '짹통' 제품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의 유명 MP3 플레이어 제품의 외관 디자인은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능까지 거의 흡사한 중국산 짹통 제품은 과거엔 주로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져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물론 국내에까지 버젓이 들어와 판매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관련업계는 레인콤의 빅 히트 모델인 목걸이형 MP3 플레이어 'N10'의 중국 짹통 제품이 중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N10의 중국 짹통 제품을 국내에서 봤다는 제보와 중국 온라인쇼핑몰에 전시된 짹통 제품 사진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레인콤은 또 2년여 전 출시했던 우주선 모양의 플래시메모리형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 IFP300'의 외관 색깔만 바꾼 중국산 짹통도 최근 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라조'라는 중국 업체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레인콤은 지난해 5월 '아이리버 IFP-180T'를 '손상'이라는 브랜드로 중국에서 판매했던 업체에 대해 올해 4월 국제변호사를 통해 현지에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레인콤 관계자는 '중국산 짹통이 발견 되는대로 국제 법무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을 한 짹통 제품마저도 계속 유통되고 있는 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엠피오가 지난 4월 출시한 목걸이형 MP3 플레이어 '캐럿 FL350'을 그대로 베낀 중국산 짹통 제품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에서 지난달 버젓이 판매됐다. 이 제품은 한글지원까지 하고, 제품 뒷면에 정보통신부의 전자과 적합 등록 마크인 'MIC 로고'까지 위조하여 처음부터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 아이옵스가 지난해 초 출시한 플래시메모리형 MP3 플레이어 'F4'의 중국 짹통도 '엠펙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달 경매사이트인 옥션에서 판매된 것이 확인됐다. USB 단자를 제품 몸체 안으로 넣어 필요할 때 회전방식으로 꺼내 쓰는 아이옵스의 특허까지 그대로 모방한 이 짹통 제품은 경매 도중 MIC 인증번호 확인불가로 판매가 중단됐다.

아이옵스의 한필규 과장은 '과거 중국산 짹통 MP3 플레이어는 한국제품의 2~3년 전 모델을 흉내내는 것들이 주류였으나, 요새는 최신 한국제품을 외관은 물론 버튼 위치, 디스플레이, 독특한 기능까지 빠르게 복제하고 있다'며 '아이옵스 F4는 1년여만에, 엠피오의 FL350 짹통은 불과 3개월만에 카피됐다'고 전했다.

'네이버'상표 분쟁에서 NHN 승소

인터넷 포털 NHN과 여행업체 네이버여행사가 '네이버'를 놓고 벌인 상표분쟁에서 NHN이 승소했다.

지난달 2일 특허심판원은 NHN이 네이버여행사의 상표 '네이버투어(Navertour)'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인터넷 포털서비스 네이버와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네이버투어가 상표로 등록될 당시 '네이버'는 이미 NHN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네이버투어 상표는 NHN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잘못 등록된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NHN은 지난 '99년 '네이버'를 인터넷 사업에 대해, 네이버여행사는 지난해 '네이버투어'를 여행업에 대해 각각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다.

특허청, 실시간 평가제도 도입

공직사회에 성과를 통한 '실시간 평가관리제도'가 도입됐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난 8월 9일 '성과 및 고객 지향적 특허행정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BSC(균형 성과모델) 성과관리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특허청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9개월 간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난 6월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상반기 성과평가를 시범 진행,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 시스템은 정부부처 최초로 국, 과 등 조직 단위는 물론 개인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개인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성과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상급자 중심인 개인별 평가 부분을 개선, 앞으로는 상급자와 동료, 하급 직원 등에 의한 다면 평가로 변경했으며 조직 평가는 국, 과 단위의 추진실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스템화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은 6시그마와 함께 업무혁신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성과관리가 잘되면 결국 일반인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실용신안 대법원 주요판례' 발간

특허심판원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중에서 2005년 4월 15일까지 선고된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2백여 건을 선정하여 '특허·실용신안 대법원 주요 판례 모음집'을 지난 8월 발간하였다.

판례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심사·심판 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나, 그 양이 방대하여 업무 수행 중에 관련 판례를 찾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이해를 도모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이 모음집은 각 판례별로 원심판결 및 참조판례를 병기하여 각 판례와 관련된 유사판례를 찾아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판례를 관련 법조문별로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이용하여 찾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판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러한 판례 모음집 외에도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 신속·정확한 심판업무의 수행, 관련법령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심판·소송 분야에 대한 교육과 판례연구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분야의 발전 및 혁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복의 기쁨은 상표에도 녹아있다

수요자나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브랜드명을 찾아 자기 상품을 알리려는 상표경쟁에서 '광복절'이나 '독립' 또는 '815' 같은 국경일 관련용어도 그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15일, 특허청은 60주년을 맞는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절 관련 용어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을 알아본 결과 '독립'이 1백60건, '815' 또는 '팔일오'가 86건, '광복'이 20건으로 광복절 관련 용어의 출원은 총 2백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15'는 '815 사이드, 콜라독립 815' 등 음료에 상표등록되었고, '독립'은 주로 음식점 및 의류에 '피자독립 815, 독립문'으로 상표출원되었으며, '광복'은 신문에 '광복군신문, 광복신문' 등으로 두드러진 출원을 나타냈다.

'독립, 815, 팔일오, 광복' 등은 광복절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소비자들에게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고, 숫자로 발음되거나 의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상표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출원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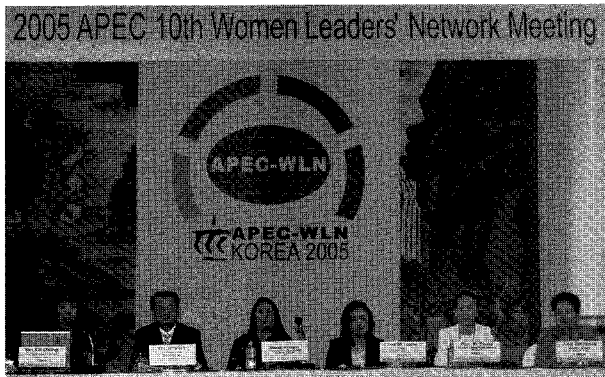
2005 APEC 제10차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

지난 2005년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구 인터볼로 호텔에서 APEC 역내 여성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05 APEC 제10차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가 열렸다.

APEC 지역의 여성지도자들 3백여명과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지도자 1백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이번 회의는 '혁신을 통한 여성기업의 번영: 여성 기업인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APEC 역내 여성의 발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선언문 채택 및 여성 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무역과 투자 교류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를 주관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명금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여성들이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를 추월하여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공동의 번영을 일구려는 주제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회의를 알리는 개회식에는 권양숙 영부인이 참석하여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의 환영사와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한 마이크로그레디트 정책과 프로그램, 차세대 여성기업인 육성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각 부제 발표자들의 모습. 김교정(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종수(사회연대은행), Elizabeth A.Vazquez(칠레 노던 가톨릭대학), 이미영(건국대학교 교수), 한미영(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정재욱(왼쪽부터).

가' 분과 회의를 진행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APEC 시장 진출시 여성기업의 강점과 애로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들' 등으로 논의되었던 분과회의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APEC 역내 여성지도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는 2006년에 베트남에서 11회를 이

공동 번영, 혁신적인 ICT 기술의 접근, 네트워킹을 통한 무역의 촉진' 등 4개의 주제로 분과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 의장으로 참석한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네트워킹을 통한 무역의 촉진' 중 소주제인 'APEC 역내 여성기업인 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사례, 그리고 평가' 분과 회의를 진행 하였으며, 본회의에서는 'APEC 시장 진출시 여성기업의 강점과 애로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들' 등으로 논의되었던 분과회의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APEC 역내 여성지도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인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는 2006년에 베트남에서 11회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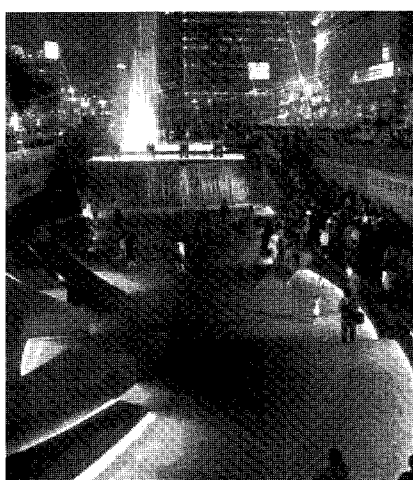
여성지도자네트워크 회의와 함께 개최된 국제여성엑스포에 마련된 한국여성발명협회 부스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김명자(홍삼명품관 대표), 강경옥(강경옥부티크 대표), 한미영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 천숙자(삼보기업 대표), 이길순(썬에어비타대표이사).

도심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 대폭 증가

최근 조명분수, 옥외 조형물, 파고라, 벤치, 가드레일, 가로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대폭 증가하여 밝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에 따르면, 도심 환경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2003년 2천3백31건에서 2004년 3천1백57건, 2005년 상반기 중 1천7백34건으로 늘어나 2003년 대비 평균 2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심 공공시설물을 그 성격에 따라 휴게시설 물품, 안전시설 물품, 조립식 건축물, 도로시설 물품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명분수, 인공폭포, 옥외 조형물,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물품의 경우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기본 컨셉트로 하고 있어 최근 출원동향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2005년 상반기 중에만 66건이 출원되어 전년 대비 28.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가드레일, 도로용 울타리, 교량용 난간, 가로등으로 대표되는 안전시설 물품은 기존의 기능성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친근감과 편안함을 부가한 미려한 디자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1천48건이 출원



청계천 시작점인 청계광장에 설치된 청색, 녹색, 백색 등 삼색 조명이 어우러진 캔들 분수가 유럽의 광장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되어 전년보다 32.6%나 증가하였다.

다만 버스 승강장, 이동식 화장실, 간이 판매소, 공중전화 부스와 같은 조립식 건축물은 그간의 건축경기 영향과 휴대전화의 대중화에 따라 전년대비 10.7%의 증가에 그쳤으나 외관에 있어서는 산뜻한 도회풍의 디자인으로 이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 도로 표지판, 도로용 게시판, 보도블럭, 맨홀뚜껑, 가로수 뿌리 보호용 덮개 등의 도로설치 물품도 색상과 모양이 다양화되어 도심환경을 밝고 생동감 있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공공시설물도 환경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기능성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하고, 또한 밝고 경쾌한 색상의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면서 쾌적하고 생기 있는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디자인과는 거리가 있었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심은 무미건조하고 무질서한 도시가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탈바꿈되기를 바라는 시민적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세계의 우수한 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